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 교우 및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 수 정* · 한 경 훈**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의 흥미 및 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효과를 탐색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조사 자료의 중학교 3학년 1,995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의 음악문화활동은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인적 경험 위주의 음악문화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와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만한 교우관계와 교사 기능 및 역할의 영향력은 학생의 효능감과 성공적인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적 달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음악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현대 사회의 청소년에게 적합한 실천적인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의 음악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주제어: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
2.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2. 변인정의
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

V. 논의 및 결론

* 전남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청소년들은 도시화, 정보화, 산업화된 환경에서 여러 물질적 혜택과 풍요 속에 성장하고 있으나 과도한 학업과 입시의 경쟁 등에 인해 전인적 삶의 여유와 다양한 예술문화활동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은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 다양한 교육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조성연 외, 2008).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인 변화와 발달과업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급변하는 한국 사회는 사춘기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부담을 더 해주고 있으며, 지식 위주와 진로 중심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의 제공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의 전개를 위해 집중이수제와 교육과정 편제에서의 학년 군, 교과 군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과 교과수업시수의 증감 운영 등을 강조하여 개정하였다. 박병선 외(2009)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상에서 예술에는 음악, 미술을 위시하여 더욱 다양한 장르(무대 예술, 문화 콘텐츠, 연극, 영화, 영상 등)를 다룰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창조성과 잠재된 학문의 능력 발휘를 위한 다양한 학문의 체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Mooman(1954)은 음악적 경험이나 활동이 청소년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좋은 배출구로써 성숙한 청소년의 감정표현과 통제를 발달시킨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율성보다는 자율성에 의한 내재적 동기를 높여야 하며, 학업에 관한 압박감 및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를 줄여 경쟁심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박병기, 송정화, 2008; 소연희, 2008;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즉,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음악문화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아 실현, 창의성 신장, 심미적 성장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자기계발과 문제해결능력을 촉진하게 유도하고 원활한 교우관계를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을 향상하게 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과 잠재된 표현 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학습 참여자의 촉진자로서 학생을 배려하고, 자기주도적·능동적인 음악문화활동을 장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은 청소년의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학생의 음악문화활동의 체험적 실천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바른 심성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자신의 유익한 삶을 향상하게 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음악교육 효과와 음악 흥미 및 음악학업의 성취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¹⁾와 같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데이터²⁾를 사용한 논문으로는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백병부, 김경근, 2007; 변수용, 김경근, 2008; 백병부, 2011)이 있으며, 이외에도 과학교과 흥미 중심의 연구(김경식, 이현철, 2009), 수능점수 학업성취 연구(박기성, 이인재, 2010) 등이 수행되었으나 이는 주로 학문적 교과 위주의 흥미와 성취이며, 청소년에게 중요한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학생의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여 그 보완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전인적 인간 성장과 더욱 효과적인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적 대안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이 연구의 자료는 2004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자료이며, 이미 수집된 1차 조사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중학교시기에 속해 있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나타난 음악문화활동 관련 특성이 이후 고등학교 등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추후 패널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연구논문이기에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이 외에도 KEEP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연구들(이기중, 곽수란, 2010; 유백산, 황여정, 2011; 백원영, 장한나, 2012; 김두환, 김문조, 이왕원, 2013)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이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

음악교육은 소리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길러주고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의 기술을 발전시키며, 즐겁게 흥미를 가지고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진우, 이순형, 2003).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음악활동을 통해 학생이 미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창의성, 인지, 정서 등의 심리적 과정을 발달시키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삶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흥미란 “어떤 활동 군에 이끌리게 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 “특정한 활동으로의 욕구”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며(박종현, 1993), 흥미는 자기 표현적 활동으로 잠재된 여러 성향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종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 흥미는 음악의 정의적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음악에 대한 개인의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을 의미하며(배성애, 2000), 최영경(2008)은 음악흥미도가 일반적으로 음악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려는 감정, 경향, 반응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음악 흥미는 학생들의 음악에 관한 다양한 관심의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으로써 음악활동 및 학습동기와 관련성이 있으며, 능동적인 음악활동을 이끌어 내어 학생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음악학습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취는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적 능력, 태도, 가치관 등의 학습결과에 관한 총칭을 의미하며, 음악학습의 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학생의 특성은 효과적인 음악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흥미는 음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백민재, 2004),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음

악성향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흥미를 배경으로 한 자기주도적인 음악학습은 중학생들의 예술적인 표현능력을 촉진하여 음악학습능력을 향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찬옥과 유성모(2011)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 시간을 늘리고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빈도를 높임으로써 풍부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촉진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문화활동을 통한 창의적 능력과 음악교육적 체험은 인성을 중심으로 한 협력학습의 경험으로 동료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와의 상호적 교류를 촉진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 등의 자아효능감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에 유익함을 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활동이 학생의 원만한 교우관계, 교사와의 상호적 교류, 자아효능감의 효과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교과 흥미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1) 음악문화활동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음악에 관한 개념 형성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음악적 흥미 역시 음악적인 이해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다(Woodruff, 1970). 학교의 음악교육은 진학 위주 교육의 영향으로 학생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학생은 방과 후의 개별적인 음악학습으로 음악적 창의성과 흥미, 예술적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에 학교 외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³⁾으로 유발된 음악 흥미는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과 발달을 이루고, 자기주도적인 음악표현능력과 잠재된 소질을 이끌어냄으로써 음악학습 성취의 향상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beles, Hoffer와 Klotman(1994)은 음악적 흥미를 육성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송윤희(2004)는 음악교과에

3)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음악문화활동의 영역은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과 관련된 문화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뮤지컬, 영화, 연극 관람 등을 포함한다.

대한 흥미가 음악적 이해의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음악에 대한 인지적 상태가 정서적 경험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Little, Wimer와 Weiss(2008)의 연구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의 참여는 학업성취 향상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건강증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체험 중심의 음악문화 교육활동은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주고 표현의 욕구와 음악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감수성 촉진과 음악적 사고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문화의 학습방법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음악요소를 통하여 학습의 진리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유도하게 될 때 음악학습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음악문화활동은 음악 흥미와 학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EEP의 1~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의 고급문화활동을 연구한 변수용과 김정근(2008)은 학생의 고급문화활동은 수능 성적과 같은 학업성취에는 대체로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이 초과하면 성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악적 요소가 내재된 공연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음악문화 체험교육은 청소년의 음악 흥미와 성취에 있어 중요하며,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문화 활동은 학생의 창의성 표현을 도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인 음악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음악교과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음악문화활동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교우 및 교사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은 긍정적인 특징이 증가하나 부정적인 특징은 감소하며, 바른 행동과 수업참여가 적극적이고 학업성취도가 높다(Berndt, 1999). 음악체험 과정과 활동에서의 역동성은 학생들 간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더욱 향상하게 한다(Bruscia, 1998). 그리고 Runco(2007)는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자녀의 창의성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선임(2005)은 합창을 통해 전체 속에서 학생은 자기역할의 중요성을 배우고 집단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면서 일체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학생이 동료에 관하여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에서의 성실함과 노래, 춤, 운동, 유머 등의 재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음악 관련 학습활동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고 학습성취도가 촉진될 것으로 여겨진다.

Sells와 Roff(1967)는 동료 수용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설

명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은 교우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수용도가 높으며(Green et al, 1980), 음악을 매개체로 하는 그룹치료는 연주를 통해 학생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전희란, 2009)고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이 동료의 학업적 우수함과 다재다능함, 미래 포부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소통을 통해 음악 공동체 학습에 있어 흥미와 성취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동료와의 음악교과학습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공동체로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과 교우와의 관계, 교사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이경남, 2008), 교사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취가 높고 심리적 기능이 양호한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심리적·행동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학업성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Eccles et al; 1993). 그리고 Steinberg 외(1995)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은 또래집단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업성취가 높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Rotgans와 Schmidt(2011)는 교우 및 교사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습결과, 자기조절학습, 유능감, 자율성, 학습동기, 학습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임부연과 원미은(2011)은 학생들이 학교 외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약하고 교실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예술, 문화매개자로서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음악 감상회를 비롯한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관, 사진 전시회 등의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두어 현시대 문화예술 전반을 수용하고 예술적 존재로서 자기발견과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인숙, 변종임과 조순옥(2010)은 방과 후 학교 활동 참여는 학업성취도 향상과 함께 학생의 교사 및 교우관계 형성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즉,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은 동료, 교사와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므로 교사는 음악교과 관련 학습의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음악문화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 적성에 관심을 가져주면, 학생의 음악적 흥미와 학업의 촉진에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Murdock과 Miller(2003)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제시했으며, 최지은와 신용주(2003)의 청소년과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간의 비교 연구에서는 교사관계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지며, 학생에게 존경받는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학생은 상상력, 창의력을 성장하게 하는 내

적 학습기회를 촉진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심성계발 및 전인적 인성교육과 음악 학문의 흥미와 성취를 증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우 및 교사 간의 정서적 교류는 음악 흥미와 음악학습 증진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3) 자아효능감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자아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유래한 구성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 자원 및 행동절차를 개인이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82).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Kurtz & Borkowski, 1984), 이러한 자아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 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행동 양식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문제이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문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대함으로써 학습 성취도의 저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성취에 있어서 효능감의 중요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을 능가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Ozdemir(2009)는 높은 기술 및 능력을 가졌으나 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은 낮은 기술 및 능력을 소유했으나 효능감이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고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형성에는 잠재력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활동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실행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Bandura, 1986), 정진원(2007)은 강한 자기효능감은 자기 스스로를 음악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이를 실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노력이 따라야 성공적인 성취로 이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음악에 있어서 자아효능감은 연습 수준 및 음악적 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McPhurson & McCormick, 2003), Eccles, Wigfield와 Schiefele(1998)는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에 응하여 끈질기게 노력하고 더욱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 자아성취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박철용,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성공 가능성이 크며(차유림, 2001), 실패의 두려움이 적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Campbell, 1990). Asmus(1986)는 음악적 성취의 성공과 실패는 연주능력의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과 자신감 등의 내적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학문적 수행을 보인다는 것은 많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왔다(Pajares, 1996). 한편, 김종한(2001)은 고등학생의 자아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교과 선호도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어 학업성취와 관련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학생의 개인적인 능력, 자신감 등의 자아효능감 향상은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자아효능감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은 청소년의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음악교과 흥미와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차 조사 자료로써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6,000명(중학교 3학년,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각 2,000명)의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및 담임, 학교 행정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패널 2,000명과 학생의 가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⁴⁾를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결측 자료는 Listwise 처리하였으며, 모형에 투입된 최종 사례 수는 1,995명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KEEP의 조사 자료는 전국단위에서 지역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중학교를 선정한 후,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자료는 진학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지나치기 쉬운 청소년의 음악교과 교육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설문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자료

4) 이 연구의 연구자는 조사 자료(EXCEL, SPSS 파일, 중학생의 설문지 등)와 관련하여 자료 수집, 연구 또는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료의 사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 메뉴의 자료 다운로드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데이터 관련 담당자의 이메일로 허가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로써 유용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까지 9차(2012년) 자료가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부의 지원과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대규모의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개인 특성 및 배경 변수와 교육 및 고용과 관련된 변인 등에 대해 추적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있다.

2. 변인정의

1) 음악문화활동 변인

음악문화활동 변인은 뮤지컬, 영화, 연극 등의 관람으로 음악이 포함된 문화활동을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은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써 각 문항의 점수 여부는 “전혀 하지 않음” 1점부터 “일주일에 몇 번” 5점까지 5단계로 되어 있다.

2) 교우관계 변인

교우관계 변인은 가장 친한 친구에 관한 학생의 평가로써 동료와 학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은 “공부를 잘 한다”,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다”, “리더십이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 “친구관계가 좋다”, “학교생활에 성실하다”로써 7문항을 합산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여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682로 나타났다.

3) 교사관계 변인

교사관계 변인은 교사에 관한 학생의 평가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로써 4문항을 합산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여부는 “예” 1점부터 “아니오” 2점까지 2단계로 되어 있으며,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668로 나타났다.

4) 자아효능감 변인

자아효능감 변인은 학생의 개인적 능력 정도에 관한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써 6문항을 합산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점수 여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765로 나타났다.

5)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변인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변인은 음악교과의 학습에 관한 흥미 정도와 성취 여부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은 “흥미가 있다”, “잘 한다”의 2문항으로 이를 합산하였다.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정도의 문항 점수 여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Cronbach's α 계수는 .77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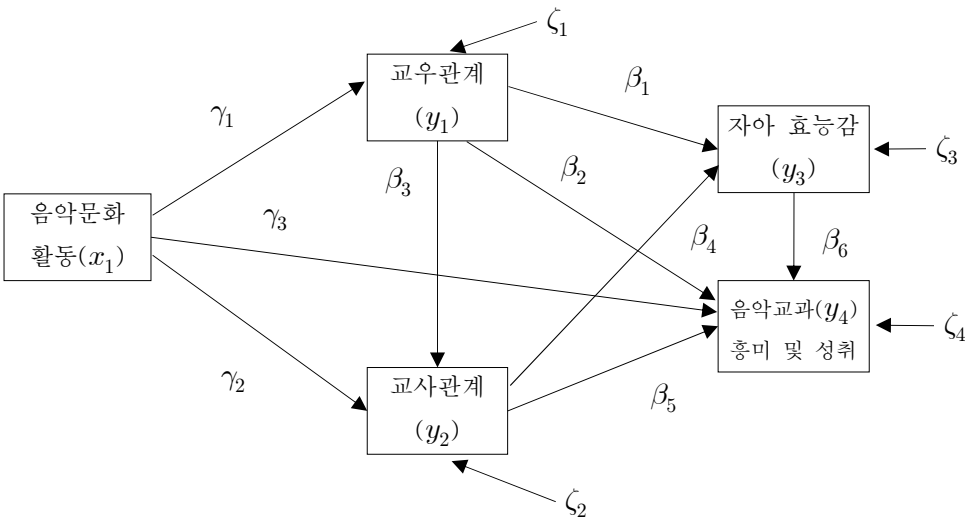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자료가 연구모형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값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투입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결과이다.

둘째, 이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값,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ices), NFI(Normal Fit Index), RMR(Root Mean Residual)을 통해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이 청소년의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측정변인 인과관계 연구모형

LISREL의 부호체계들을 활용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체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_1 &= \gamma_1 x_1 + \zeta_1 \\ y_2 &= \gamma_2 x_1 + \beta_3 y_1 + \zeta_2 \\ y_3 &= \beta_1 y_1 + \beta_4 y_2 + \zeta_3 \\ y_4 &= \gamma_3 x_1 + \beta_2 y_1 + \beta_5 y_2 + \beta_6 y_3 + \zeta_4 \end{aligned}$$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중학생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모든 측정변인 기술통계값과 상관계수는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은 중학생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2>는 중학생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이는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표본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결과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추정절차에 있어 전제 중 하나는 연속적인 변인에 관한 정상분포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본측정치가 정상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중요한 지수이며, 일반적으로 왜도와 첨도가 1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 모수추정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이기중, 2012). <표 1>에 제시된 왜도와 첨도의 결과를 볼 때 음악문화활동 변인이 정상성에서 약간 벗어난 것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음악문화활동이 정상분포에서 조금 벗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최대가능법(ML)으로 추정하였다.

<표 1> 표본자료 기술통계값

(N=1,995)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음악문화활동	1.00	5.00	2.36	1.12	.11	-1.26
교우관계	1.43	5.00	3.41	.50	-.13	.31
교사관계	1.00	2.00	1.35	.33	.52	-.91
자아효능감	1.17	5.00	3.27	.57	.14	.41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1.00	5.00	3.04	.99	-.11	-.42

중학생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의 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N=1,995)

변인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음악문화활동	1.000				
교우관계	.168**	1.000			
교사관계	-.141**	-.231**	1.000		
자아효능감	.161**	.315**	-.237**	1.000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054**	.205**	-.169**	.233**	1.000

** $p < .01$

2.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

1) 모형평가

중학생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모형 평가지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모형적합도

(N=1,995)

모형	χ^2	p	df	NFI	GFI	CFI	RMR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19.36	.00	1	.98	1.00	.98	.01

Chi-square(χ^2)는 이론에 의해 설정된 모형이 시사하는 모형공분산행렬이 모집단 변인들의 관계를 반영하는 모집단공분산행렬에 들어맞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χ^2 값이 크고 확률값이 유의미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연구모형의 χ^2 적합도는 $\chi^2=19.36(df=1, p=.00)$ 으로써 적합한 모형이라 볼 수 없으나 χ^2 는 사례 수에 민감하게 그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 수가 클 경우 다른 평가지수를 고려해서 모형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수는 1,995명이며 매우 크므로 안정적인 평가지수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NFI(Normal Fit Index)는 0~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표준화되었다고 한다(Bentler & Bonett, 1980). NFI의 수용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수용할만하다고 할 수 있으며(배병렬, 2011),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모형은 .98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표본공분산행렬이 모형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표본공분산행렬의 분산과 공분산이 이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들로 예측되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합치도 지수이다(이기중, 2012). GFI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나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값이 음수이면 모형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χ^2 값과는 달리 표본 크기나 다변량 정상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모형은 1.00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ices)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1). 비교적합지수인 CFI는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모형은 .98로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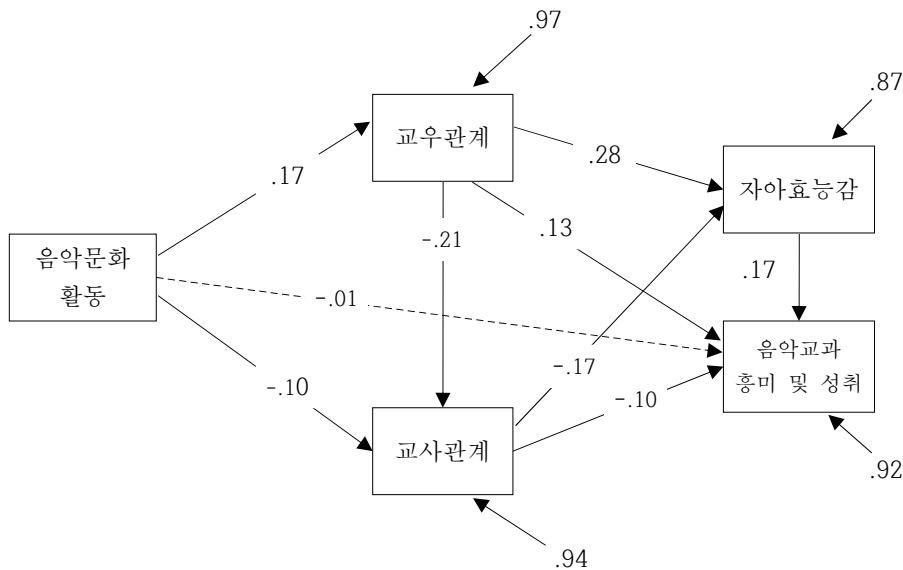
RMR(Root Mean Residual)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이다. 그 값이 작을 때 적합한 모형이 되며 커질수록 모형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05로 볼 때,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모형은 .01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다른 변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직접효과라고 한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의 화살표로 나타나 있

는 것은 두 변수 가운데 하나는 원인이며, 다른 하나는 효과임을 의미한다. 화살표로 두 변수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은 두 변수의 관계가 인과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이기중, 2012). 그리고 실선의 경로는 유의미한 경로이며, 점선의 표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한다.

[그림 2]에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교우관계의 오차(ζ)는 .97이며, 음악문화활동이 교우관계를 설명하는 정도가 3%로써 학생의 교우관계에 음악문화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교사관계의 오차는 .94로써 음악문화활동과 교우관계가 교사관계를 설명하는 정도가 6%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아효능감의 오차는 .87로써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13%이며, 자아효능감에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요인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오차는 .92이며,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를 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써 자아효능감보다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음악문화활동에서 교우관계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7, $t=7.61$, $p<.001$), 음악문화활동에서 교사관계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0, $t=-4.77$, $p<.001$), 교우관계에서 교사관계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21, $t=-9.71$, $p<.001$), 교우관계에서 자아효능감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28, $t=12.80$, $p<.001$), 교우관계에서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3, $t=5.60$, $p<.001$), 교사관계에서 자아효능감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7, $t=-8.08$, $p<.001$), 교사관계에서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0, $t=-4.43$, $p<.001$), 자아효능감에서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7, $t=7.41$, $p<.001$)가 유의하였다. 즉, 음악문화활동과 교우관계, 교우관계와 자아효능감, 교우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자아효능감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음악문화활동과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 교사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에는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는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경로의 추정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중간에 있는 다른 변수에 의해 효과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런 것을 간접효과라 하며, 이럴 때 효과를 중재하는 변수를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라고 한다(이기중, 2011). 그리고 경로 분석에서의 총효과⁵⁾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합에 의해 얻어진다(배병렬, 2011; 이기중, 2011; 심준섭, 2013). 또한, 우종필(2013)과 심준섭(2013)은 직접효과는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이며, 간접효과는 외생변수가 매개변수들을 통해 내생변수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로써 각 경로상의 모든 경로계수의 곱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모형의 인과관계는 <표 4>와 같다.

5) 다음은 추정치(estimated)의 계산식을 대신하여 <표 4>의 표준화 추정치(standard estimates)를 토대로 계산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① 직접효과 예) 음악문화활동→교우관계 : .17

② 간접효과 예) 음악문화활동→교사관계 : $.17 \times -.21 = .04$

음악문화활동→자아효능감 : $(.17 \times .28) + (.17 \times -.21 \times .17) + (-.10 \times -.17) = .07$

③ 총효과 예) 음악문화활동→교사관계 : $-.10 + (.17 \times -.21) = -.14$

<표 4>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N=1,995)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변인	효과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음악문화 활동	음악문화활동 → 교우관계	.17(7.61)***	-	.17(7.61)***
	음악문화활동 → 교사관계	-.10(-4.77)***	-.04(-5.99)***	-.14(-6.35)***
	음악문화활동 → 자아효능감	-	.07(7.96)***	.07(7.96)***
	음악문화활동 →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01(-.44)	.05(6.95)***	.04(1.73)
교우관계	교우관계 → 교사관계	-.21(-9.71)***	-	-.21(-9.71)***
	교우관계 → 자아효능감	.28(12.80)***	.04(6.21)***	.31(14.69)***
	교우관계 →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13(5.60)***	.07(8.17)***	.20(9.18)***
교사관계	교사관계 → 자아효능감	-.17(-8.08)***	-	-.17(-8.08)***
	교사관계 →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10(-4.43)***	-.03(-5.46)***	-.13(-5.76)***
자아 효능감	자아효능감 →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17(7.41)***	-	.17(7.41)***

* $p < .05$, ** $p < .01$, *** $p < .001$, ()는 t 값

<표 4>에 제시된 경로 모형 분석결과, 음악문화활동과 교우관계, 음악문화활동과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자아효능감, 교우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 교사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자아효능감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문화활동과 교사관계, 음악문화활동과 자아효능감, 음악문화활동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교우관계와 자아효능감, 교우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교사관계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에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음악문화활동은 교우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시 교사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문화활동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시 자아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는 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음악교과의 흥미 및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시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은 각각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각 요인의 변화가 어떠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인과관계의 경로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문화활동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 교사관계에는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음악문화활동은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문화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학생과 동료 교우 간에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음악교과의 흥미와 성취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의외의 결과는 음악문화활동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교사는 내신 중심의 학업성취 향상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교육을 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어 음악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학교교육 관계자는 학생의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 증진을 위해 원만한 교우관계의 중요성과 교사관계의 영향력에 관한 교육의 재조정을 인식하도록 하고 음악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협조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되므로 교육관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음악학습의 흥미 촉진을 유

도하여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상호 유대관계의 형성을 돕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의 음악문화활동의 유익한 경험은 교우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통해서 음악학습 흥미 촉진과 음악학업의 성취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은 창조적인 음악표현, 조화로운 인격함양과 인간성 발달에 도움을 주어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협동심 증진 등의 작용으로 바람직한 사회화 과정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게 한다. 따라서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인성 및 창의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음악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우관계는 자아효능감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 교사관계에는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교사관계는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교우관계가 교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영향과 교사관계와 관련된 자아효능감,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 간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교사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음악 흥미 및 성취가 효과적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문 위주의 주요 교과를 강조하고 취업 연계의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음악교과교육의 중요성을 배제한 속성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식이나 주입식 교육, 교과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전인적 교육과 다양한 음악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역할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교사와 관련한 여타의 변인을 추가하여 교사의 기능과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한 음악문화활동은 학생 개인의 음악적 감수성 육성과 가치를 실현하게 하고 학습자의 음악적 능력 향상과 음악적 표현양식의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의 효과적인 긍정적 성장을 촉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직접적인 음악성 표현과 창작을 중심으로 한 음악문화교육의 활성화로 인지교육과 감성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돕고,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음악활동에 관한 학생의 관심 사항과 필요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학교 내 및 교외의 외부 음악문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학생의 음악적 발표력과 자신감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유 있는 음악예술 문화공간을 확보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음악교과 흥미 유발 및 음악학업의 성취를 위해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음악체험학습 을 지원하고, 교우와 교사 간의 친밀한 정서적 교류로 음악 예술 표현력을 확장 하여 소통과 안정감이 있는 학교생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와 변화에 유연한 사고력 향상으로 학생 자신 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음악 의 생활화로 음악적 감수성, 창의성, 사회성 발달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인격형성, 정서적·심미적 안정, 감성발달을 위해 다양한 음악문화활동 경험에 가능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이 선호하는 음악문화 생활 속에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이 외 에도 청소년의 자아효능감 증진과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전문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이 확인되며, 학생의 개별능력 향상을 촉진하여 음악학업 흥미와 성취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료 교우, 교사와 더욱 친밀한 상호교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학생들 간의 관계성 유지와 소속감을 높이고 공동체적 인성의 협력의식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음악문화 자원을 발굴하도록 해야 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지원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음악적 흥미와 성취를 향상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교육의 음악적 경험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음악문화활동의 경험 기회를 지원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연주활동의 기회와 사회적 체험,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의 능동적인 음악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 교우, 교사, 학교 내외, 지역사회 공동체의 넓은 틀에서 유기적으로 음악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음악교육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활발한 음악문화활동을 통한 정서적 만족감, 자신감 및 성취감의 향상, 음악학습 흥미 증진으로 성공적인 음악교과학습을 경험하도록 하고, 현대 사회의 청소년에게 적합한 실천적인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과 국가 차원의 음악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음악교과 흥미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효능감 외 다른 요인들과의 영향과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적절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공교육과 지역사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제반 환경 시스템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음악문화활동에 효과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이에 적합한 바른 지도와 안내를 담당하는 교사의 재교육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교사관계 변인과 관련된 경로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예측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여타의 변인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추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 시점의 효과를 측정하는 일회성 연구가 아닌 추적조사, 비교집단 연구, 종단연구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연구의 수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병선, 강현석, 김경자, 김제춘, 박순경, 소경희, 홍후조 (2009). **미래형 교육과정 방향 및 실행 체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식, 이현철 (2009). 과학교과 흥미도의 종단적 변화와 그 영향요인. **과학교육 연구지**, 33(1), 100-110.
- 김두환, 김문조, 이왕원 (2013). 학업성취 관련요인들이 STEAM 교과목 흥미 다 양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3), 31-58.
- 김인숙, 변종임, 조순옥 (2010). 방과 후 학교 참여의 영향. **열린교육연구**, 18(4), 246-270.
- 김종환 (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박기성, 이인재 (2010). 학업성취도와 급우효과. **응용경제**, 12(3), 107-130.
- 박병기, 송정화 (2008). 변화신념, 목표 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및 주관적 안녕의 인과구조 탐색: Dweck 모형의 확장. **교육심리연구**, 22(2), 333-350.
- 박종현 (1993). **플라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철용 (2012). 에어로빅 지도자의 이미지에 따른 자아성취감, 심리적 행복감 및 참여 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3), 47-60.
- 배병렬 (2011). **Amos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성애 (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민재 (2004).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병부 (2011). 계급별 문화자본의 보유 실태 및 문화자본 보유 결정요인 분석. **교육발전연구**, 27(1), 5-27.
- 백병부, 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백원영, 정한나 (2012).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 및 전공수업방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1), 261-284.
- 변수용, 김경근 (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 사회학연구**, 18(2), 53-82.

- 소연희 (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7(2), 49-64.
- 송찬옥, 유성모 (2011). 학업성취 관련 심리요인들과 가정환경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9(8), 27-53.
- 승윤희 (2004). 지식표상이론과 음악지식의 표상. **음악교육연구**, 27, 129-154.
-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 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1), 121-137.
- 심준섭 (2013).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법문사.
- 우종필 (2013).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백산, 황여정 (2011).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교과영역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문제연구**, 41, 61-92.
- 이경남 (2008). 아동의 개인 및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 사회적 환경이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207-221.
- 이기중 (2012).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국민대학교.
- 이기중, 곽수란 (2010).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부시간 효과 추정. **조사연구**, 11(1), 43-61.
- 이진우, 이순형 (2003). **유아 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 임부연, 원미은 (2011). Aoki의 교육과정이론에 기초한 아동 미술교사의 역할, **미술교육논총**, 25(2), 85-110.
- 전희란 (2009). 그룹 음악치료를 통한 과잉 분리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관한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6(2), 71-100.
- 정선임 (2005). 중고등학생의 합창활동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원 (2007). 음악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요소에 대한 이해와 교우 학습적 시사점. **음악교육연구**, 32, 272-258.
- 조성연, 유진이, 박은미, 정철상, 도미향, 길은배, 김민정 (2008). **청소년 복지론**. 서울: 창지사.
- 차유림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경 (2008). 유아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4), 89-109.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Abeles, H. F., Hoffer, C. R., & Klotman, R. H. (1994). *Foundation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Schirmer Books.
- Asmus, E. P. (1986). Student beliefs about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music: A study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262-278.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rndt, T.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15-28.
- Brusia, K. E. (1998). *The dynamic of music psychotherapy*. Gilsum, NH USA: Publishers Barcelona.
- Campbell, S. B. (1990). Self-esteem and the clarity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Eccles, I. S., Wigfield, A., Midgley, C., Reuman, D., Maclver, D., & Feldlaufer, H. (1993). Negative effects of traditional middle schools on students' motivation. *Elementary School Journal*, 93, 553-574.
- Eccles, J. S., Wigfield, A., & Schiefele, U. (1998). Motivation to succeed. In W. Damon (Series Ed.) and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pp. 1017 - 1095).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Green, L., Kreuter, M., Deeds, S., & Partridge, K. (1980). *Health education planning: A diagnostic approach*. Palo Alto, CA: Mayfield.
- Kurtz, B. E., & Borkowski, J. G. (1984). *Meta cognition and special children*. In Gohlson, B., & Rosenthal, T. (Eds.), *Applications of cognitive-developmental theory*, Academic Press, Inc.
- Little, P. M. D., Wimer, C., & Weiss, H. B. (2008).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21st century: Their potential and what it takes to achieve it*. Issues and opportunities in out-of-school time evaluation brief No.10.

- Cambridge, MA: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 McPhurson, G. E., & McCormick, J. (2003).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 mus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n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y of Music*, 31, 37-51.
- Mooman, S. (1954). *Discovering music in early childhood newton*. MA: Allyn & Bacon.
- Murdock, T. B., & Miller, A. (2003). Teachers as sour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identity: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nalytic approach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4), 383-399.
- Ozdemir, M. (2009). *Predictors and outcomes of adolescent self-efficacy belief: An analysis of individual, peer, family, and neighborhood level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social psychology.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4), 543-578.
- Rotgans, J. I., & Schmidt, H. G. (2011). The role of teachers in facilitating situational interest in an active-learning classroom.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7(1), 37 - 42.
- Runco, M. A. (2007). *Creativity-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ells, S. B., & Roff, M. (1967). *Peer acceptance-rejec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Steinberg, L., Darling, N., Fletcher, A. C., Brown, B. B., & Dombusch, S. M. (1995).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journey. In P. Moen, G. H. Elder, &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p. 423-4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odruff, A. D. (1970). How music concepts are developed. *Music Educators Journal*, 56.
- <http://www.krivet.re.kr>.

ABSTRACT

The Influence of Music and Cultural Activity,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Sense of Self-Efficiency on Juvenile Students' Interest and Achievement in Music Courses

Su-Jeong Han · Kyung-Hoon Han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music and cultural activity,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sense of self-efficiency on the degree of juvenile students' interest and achievement in music courses. The study was performed on 1,995 middle school senior students from the primary source of research data of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applied on the collected data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students' music and cultural activ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sense of self-efficiency were important intermediary causes that affect their interest and achievement in music cours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positive change and improved quality of cultural life through a well-rounded and experiential music and cultural education. It also indicates that a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he influence of teachers' function and role play an important factor in the attainment of students' sense of self-efficiency and a successful normalization of music education. On this, it is necessary to excavate musical culture resources for the regional communities, build a comprehensive social support network among family, school and regional community and implement practical music education for juveniles of the modern society in order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musical culture at the national level.

Key words: music and cultural activity,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sense of self-efficiency, interest and achievement in music courses

투고일: 2014년 8월 25일, 심사(수정): 10월 20일(10월 26일), 게재확정일: 11월 20일

<부 록> 중학생 설문지

변인	설문 문항 내용	참고
음악문화 활동	1) 영화, 연극, 뮤지컬 등	1차 No. 18 1)~5) 중 2)
	1) 공부를 잘 한다.	
	2) 춤, 노래, 운동, 유머 등 재주가 있다.	
교우관계	3) 리더십이 있다.	No. 5
	4)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5)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	
	6) 친구관계가 좋다.	
	7) 학교생활에 성실하다.	
교사관계	1)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No. 4
	2)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3)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4)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자아 효능감	1)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No. 50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6)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	1) 흥미가 있다	No. 27 그 외 국어, 수학, 영어, 과학영역, 사회영역 미술, 체육
	2) 잘 한다	